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 D-28

“우리도 함께 뛰다”

‘호남 마라톤의 대명사’ 제45회 광주일보 3·1절 전국 마라톤대회가 28일 앞으로 다가왔다. 3·1정신을 계승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다지는 이번 대회는 전국달리기동호회·기관 단체·시민들의 잇단 참가신청으로 벌써부터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올 대회에 참가하는 단체팀들을 소개한다.

투명한 市政...청렴도 1위
자존심 걸고 끝까지 완주

광주시청 감사관실

“청렴도 전국 1위의 명품도시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건강한 시장’을 펼쳐겠다는 각오로 광주일보 3·1절 전국마라톤대회에서 직원 모두 끝까지 완주할 것입니다.”

광주시청 감사관실은 이번 3·1절 마라톤에서 청렴도 1위의 영예를 홍보함과 동시에 앞으로 시민들을 위한 ‘투명한 시장’을 펼쳐겠다는 굳은 각오를 보였다. 그동안 광주시는 깨끗한 공직사회를 만

들기 위하여 내·외적으로 노력을 해왔다.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다양한 시책들을 발굴해 신속·공정한 고충 민원처리로 시민 불만을 최소화하였고, 불합리한 제도·관행을 개선하는데 앞장서 왔다.

깨끗한 공직사회 조성 앞장

감사관실 직원들은 이번 마라톤에서 참가자 전원 포기없는 완주를 목표로 내세우며 바쁜시정의 의지를 꼭 보여주겠다

는 결의에 가득 차 있다. 박현철 담당은 폴코스를 두 번이나 완주한 경험이 있고 거의 매일 저녁 학교 운동장을 달리는 마라톤 마니아이다. 연습으로 다져진 탄탄한 체력을 과사하는 박현철 담당은 “이번 대회가 감사관실의 하나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인 만큼 기록보다는 직원들과 페이스를 맞춰 중도 탈락자 없이 완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팀의 페이스조절자로 나설 것을 다짐했다. ‘감사관실의 대모’인 변주봉 담당은 체구



광주시청 감사관실은 이번 3·1절 마라톤에서 ‘청렴도 전국 1위 도시’의 영예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유지하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릴 것을 다짐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는 크지 않지만 등산으로 단련된 강한 체력의 소유자. 변주봉 담당은 “이번 대회가 직

직원들 돈독한 우의 다질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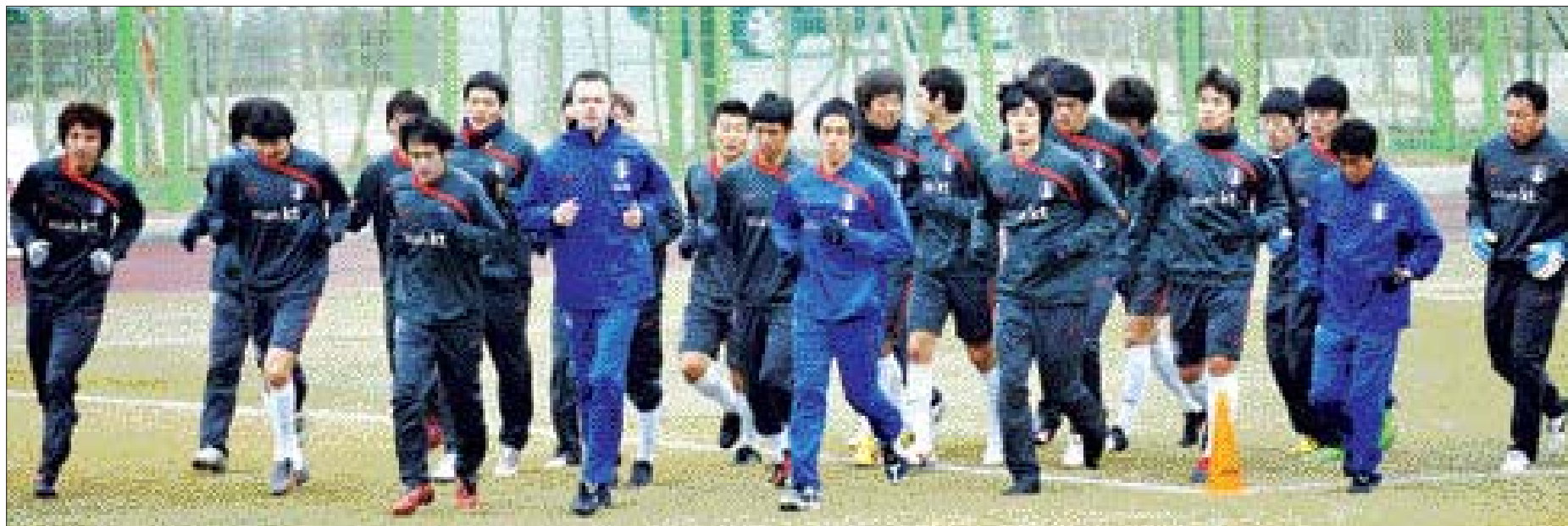
원들과 돈독한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리씨는 “마라톤대회에는 처음 도전해 보지만 업무적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다.

감사관실은 업무의 특성상 끈은 행동과

바른 품행이 요구되기 때문에 타 실국보다 근무 분위기가 다소 경직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대회를 계기로 부드럽고 활력 넘치는 감사관실로 분위기 변신, 전국 1위의 청렴도시를 유지하는데 더욱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동아시아대회에 대비해 재소집된 축구대표팀이 지난달 31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러닝훈련을 하고 있다.

/목포=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AS모나코 박주영이 지난달 31일모나코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의 홈 경기에서 상대 진영으로 파고들어 팀 동료에게 패스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파, 주영·청용 움직임 배워라”

박주영 佛무대 첫 ‘멀티골’



■목포서 ‘동아시아대회’ 준비 허 정 무 감독 인터뷰

골 만드는 과정·수비수 따돌리는 동작 등 극찬

“박주영, 이청용의 플레이를 배울 필요가 있다.”

목포에서 동아시아선수권대회를 준비하고 있는 허정무 축구대표팀감독이 유럽파 선수들의 활약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허 감독은 지난달 31일 목포국제축구센터에서 대표팀 훈련이 끝난 뒤 “이청용(볼턴)과 박주영(AS 모나코)의 경기를 보느라 날을 꼬박 새서 피곤하다”면서도 “좋은 경기들을 펼쳐 기분이 좋다”고 밝은 표정을 지었다.

이번 훈련에서 공격수들에게 슈팅 동작에서의 집중력과 과감성을 강조했던 허 감독은 “니스의 키 큰 수비수들이 마크를 하는 상황에서 박주영이 순간적으로 수비수들과 떨어지거나 헤딩슛을 시도해 골로 연결시켰다”고 박주영의 플레이를 칭찬했다.

후반 추가골 상황에 대해서는 “박주영이 빠른 스피드로 돌진해 슈팅기회를 잡았다”고 평가하면서 “당시 스피드는 본 존스 못지않았을 것이다”는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이청용의 경기는 수비수들에게 좋은 공부

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허 감독은 이날 새벽 리버풀과의 경기에서 중원에서 골문 앞까지 이어진 이청용의 드리블 상황을 예로 들면서 “이청용이 능숙하게 상대를 속이며 장신의 수비수들을 뚫고 멋진 슛을 시도했다”면서 “특점이 되지 않아 아쉬웠지만, 상대 수비수가 끝까지 포기 하지 않고 대응동작을 했기 때문에 골로 연결되지 않은 것이다”고 수비수들에게 대응동작에 대한 준비를 주문했다.

고향을 찾는 소감에 대해서도 밝혔다. 진도 출신인 허 감독은 “목포에서 중학교를 다녔던 만큼 이곳이 편하고 반갑기도 하다. 국제축구센터가 건립됐다고 해서 이곳을 찾았는데 기후도 좋고 선수들에게 음식도 잘 맞는다”고 말했다.

/목포=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시즌 8·9호골 터뜨려 모나코 3대2 승 견인

박주영(25·AS모나코)이 90분 풀타임 활약을 펼치며 한 경기에 두 골을 몰아넣었다. 박주영은 지난달 31일(한국시간) 모나코 루이 2세 스타디움에서 열린 2009-2010 프랑스 프로축구 리그 1 22라운드 OGC 니스와 홈 경기에서 정규리그 7.8호 골을 연달아 터뜨려 팀의 3-2 승리에 일등 공신이 됐다.

25일 올랭피크 리옹과 프랑스컵 32강전에서 2-1을 만드는 헤딩 결승골에 이어 두 경기 연속 득점포가 가동이다. 정규리그에서는 지난해 12월24일 르망과 원정 경기 이후 1개월 7일 만에 골을 넣었다. 정규리그 7.8호 골을 터뜨렸고 시즌 전체로는 8.9호 골이 됐다.

최근 정규리그에서 7연속 풀타임 활약을 펼친 박주영은 전반 19분 네네가 왼쪽에서 열린 코너킥을 끝낸 오른쪽 모서리를 향해 머리로 받아 넣었다. 후반 9분에 니스의 차키 벤 사다에게 동점골을 내준 모나코는 그러나 후반 15분에 박주영의 추가 골로 다시 앞서가기 시작했다.



역시 네네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다가 정면으로 쐐려준 공을 달려들며 오른발로 우겨넣어 두 번째 골을 뽑아낸 것. 프랑스 진출 이후 처음으로 한 경기에 두 골을 넣는 장면이 나왔다.

박주영은 이번 시즌 정규리그 전체 38라운드 가운데 절반을 조금 넘긴 시점에서 8골, 3도움으로 공격 포인트 11점을 올렸다. /연합뉴스

■대표팀 목포훈련 현장

허정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목포 축구센터에서 동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목포를 찾은 축구대표팀은 오는 4일까지 동아시아대회를 대비한 집중 훈련을 실시한다. 대표팀은 그동안 파주 트레이닝 센터를 찾아 훈련을 해왔지만 최근 이어진 강추위로 잔디상태가 좋지 않으면서 따뜻한 목포가 훈련지로 선택됐다. 목포에서 중학교를 나온 허정무 감독의 의중도 반영됐다.

지난달 31일 대표팀은 오전 10시30분부터 두 시간가량 강도높은 훈련을 하며 목포에

서의 두 번째 날을 보냈다.

간단한 러닝으로 몸을 풀 선수들은 경기장 구간에 걸고 뛰는 동작을 반복하는 ‘인터벌 러닝’을 하며 체력훈련을 했다. 톱토스 등으로 컨디션을 점검한 선수들은 공격 파트와 수비 파트로 나눠 전술훈련을 이어갔다.

수비파트는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훈련을 하며 실점을 막는 연습을 했다.

허 감독은 “월드컵에서 맞게 될 그리스 가 신장도 크고 세트피스에 강한 만큼 이 부

분에 중점을 두고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공격파트는 골문 앞에서의 슈팅 연습을 가졌다. 이동국(전북), 노병준(포항), 염기훈(울산) 등은 이운재(수원)를 중심으로 한 골키퍼를 상대로 골 결정력을 평가 받았다.

공격파트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허 감독은 골문 앞에서의 감각적인 움직임에 강조하면서 과감한 슈팅을 주문했다. 직접 시범을 보이기도 한 허 감독은 짧은 볼터치를 통한 군더더기 없는 빠른 공격을 강조했다.

이동국은 훈련을 마친 뒤 “이기기 위해서

는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 갈수록 대표팀의 경기력이 향상되고 조직력이 좋아지고 있다”며 동아시아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일본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근호(이와타)도 이날 오후 대표팀에 합류하면서 공격수들의 ‘결정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한편 대표팀은 2일 목포시청과의 연습경기를 통해 경기감각을 조절한 뒤, 4일 결전지인 일본으로 건너간다.

/목포=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동아대회’ 정상겨냥 체력·경기력 조율